

# 더민주, 정부 맹공 ‘출구찾기’ 국민의당 “철회 공조” 압박

## 2野 사드 배치 대응

더민주 대책위 구성 여론 수렴

박지원 “국익 문제 접근해야”

3당 19~20일 긴급 현안 질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며 혼란을 이어가는 틈을 타 국민의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분란과 외부 압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더민주는 14일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출구 찾기에 나서다가 하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배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배치 지역을 정한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말씀하셔야 할 문제”라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사드 도입 결정 부지 발표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도입 결정부터 발표까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고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은 없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다시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관련,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현안 질문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의 의원은 현안 질문에서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과정과 함께 향후 운용 계획 및 비용 부담, 레이더 유해성 논란, 대중(對中) 외교 및 경제 관계 차질 우려, 배치 지역 보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인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민주 소속 안희정 총남지사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고집한다면 국가는 분열되고 국력은 쇠잔해질 것”이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불가피 VS 재검토... 대선주자들 사드 찬반 ‘팽팽’

여권 김무성·유승민 등 찬성

야권 문재인·안철수 등 반대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대체로 사드를 ‘방어적·자위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찬성 논리를 내놓고 있는 반면 야권 주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당 대표 재임 시절부터 일찌감치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표적 ‘사드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은 전날 당 소속 TK(대구·경북) 지역 의원 21명이 공동 서명한 후보지 선정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음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확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부지 선정이 발표되기 전 사드의 경기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결정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인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민주 소속 안희정 총남지사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고집한다면 국가는 분열되고 국력은 쇠잔해질 것”이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일찌감치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작전요원 훈련 1년 소요...사드 내년 조기 배치 어려울 듯

경북 성주지역으로 확정된 사드가 내년에 조기에 배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군의 관계자는 14일 “사드가 늦어도 내년 말에나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본다”면서 “작전요원 훈련과 장비 성능 테스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부대 작전요원들이 교육 훈련을 받는데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작전요원들의 철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장비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본토에 있는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전개되는 작전요원들을 교육해야 하고, 미국 국방부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조기 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내년 말 배치가 목표지만 이를 더 앞당기는 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추미애 의원이 14일 오후 나주시 송월동 엠스스테이호텔에서 열린 전남도당 핵심당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나란히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송영길 나주서 호남 당심 잡기

더민주 당대표 출마...당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송영길 의원이 14일 나주에서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나주 엠스스테이호텔에서 열린 전남도당 핵심당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나란히 인사말을 했다.

먼저 연단에 오른 추 의원은 “경제적 소에서 도당 핵심간부 한분 한분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중앙당, 대권후보, 지역위원회가 삼박자를 이뤄 경제민주화와 지방경제를 어떻게 구제할지 지방마다 정책 비전을 만들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박했다. 추 의원은 “우리 당을 지지 중이 견고하고 튼튼한 정당으로 부활시키겠다”며 “통합, 신뢰, 강단, 정책 네 가지로 새로운 10년을 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권교체가 되면 호남인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 있는 호남 지도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내겠다”며 “차기 정권은 호남이 함께 만든 제3기 민주연합 정권이 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에 기반을 둔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광주전남혁신

도시 알앤디 산업 유치 등 유능한 당 대표로서 약화하는 경제 상황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송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과 한길을 걸어왔다”며 “정통성을 기반으로 당의 연을 확장해 정권교체 성공하고 소외됐던 호남이 꽃을 피우도록 만들겠다”며 자신이 호남의 적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찬표 목포대 교수의 정치관계법 특강, 박규섭 도당 사무처장의 당헌·당규 개정사항과 8·27 전남대회 설명 등이 이어졌다. 박영선·표창원 의원은 ‘호남 민심 회복을 위한 당원의 역할’과 ‘행복과 정의, 그리고 정치’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차대통령 “사드 배치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인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

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우려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성주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